

PEOPLE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광주자치경찰

빛고을자전거순찰대 위촉식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시청 무등홀에서 '제4기 빛고을 자전거 순찰대'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빛고을자전거순찰대는 시민들이 자전거타기 취미활동을 하면서 마을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참여형 협력 치안 시책이다. 이번 제4기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 47명을 선발, 위촉했다.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순찰대원 위촉식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신고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순찰장비를 전달했다.

순찰대는 자전거도로와 도심 골목길 등 경찰 활동이 닿지 않는 곳의 노후·파손된 방범 시설물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삼도농협, 조합원 자녀 학자금 전달

삼도농협은 최근 농업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조합원 및 대학교 신입생 자녀 7명에게 총 700만원의 학자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문채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해 조합원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삼도농협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총 2억 11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했으며, 조합원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미래 인재 육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장학사업은 농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임문채 삼도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삼도농협은 환원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실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photo25@



농업인과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농협 마트사업호남지사

농협 마트사업호남지사는 최근 일손이 부족한 전남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동준 지사장과 직원 11명은 인력 수급이 어려운 나주시 관내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모종 심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 지원을 받은 농가주는 "일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농협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영동준 농협 마트사업호남지사장은 "경계가 어려워 같아 힘든 시기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농업인이 힘든 시기인 것 같다"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국내외 청년과 섬 주민 지속 소통...섬 가치 공유”

전남 섬 청년 국제교류 활동 추진 멘토링부터 국제섬 워크캠프까지 '외교관의 비밀수첩' 특강도 진행

전남도는 섬 청년의 자긍심을 높이고,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올해도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학교로 지정된 신안 도초고등학교에서 전남도 국제관계대사 특강을 시작으로, 섬 지역 학교와 전문가가 함께 하는 진로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안 도초고에서 박철주 전남도 국제관계대사가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외교관의 비밀수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지난 23일 진행했다.

특강에선 외교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섬 지역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시야 확장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국제청년섬워크캠프 참가자들과 도초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해안정화활동.

하반기에는 '제6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신안, 완도, 여수 등 전남의 주요 섬 지역에서 펼쳐진다.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국제 봉사단체와 협력해 국내외 청년이 섬 주민과 교류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워크캠프는 지금까지 총 40개국, 393명의 국내외 청년이 참여해 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워크캠프는 7월 신안 섬에서 '세계적인

인물의 섬, 글로벌 인재와 세계시민'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완도 섬에서는 8월 8일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와 연계해 '섬과 치유의 섬'을 주제로 활동한다.

문화체육관광부 K관광섬으로 선정된 여수 거문도에서는 '지속 가능한 섬 관광 실천'을 지원 봉사여행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전남도는 오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섬의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

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섬과 세계를 잇는 교류의 장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은 더 큰 세계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섬을 중심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내외 청년과 섬 주민이 지속해서 교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태군 도의장,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지역소멸 대응·청년층 정착 등 실천적 정책 호평

김태군 전남도의회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2025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동체역량 증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라는 전남의 당면 과제 대응을 위해 실천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협력 구조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김 의장은 전국 최초로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남도 및 도교육청과 함께 '전남도의회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출범시켜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청년·소상공인 단체들과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실행력 또한 강화해왔다.

이러한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은 김 의장의 의정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군 도의장은 "이번 수상은 전남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를 도민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애쓴 여정에 주신 값진 격려라 생각한다"며, "청년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힘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전남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 주요 기관이 후원하는 시상으로, 유능한 지방 정치인을 발굴하고 올바른 정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선간호대학교와 동강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는 23일 조선간호대 회의실에서 광주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간호대-동강대-호남신학대, 광주시 RISE사업 협약

조선간호대학교와 동강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는 23일 조선간호대 회의실에서 광주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세 대학 총장과 주요 보직자가 참석해 RISE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컨소시엄 출범을 공식화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각 대학은 앞으로 △인스타랩 창업지원 △산학협력 R&D 생태계 조성 △창업·기업 실증지원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

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기업 VALUE UP)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 대학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며 "각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임동 중흥S클래스-동행내과의원, 주민 건강 증진 '맞손'

우대혜택 등 제공...기대서 복구의원 가교 역할

광주 북구 임동 중흥S클래스 센텀파크 아파트와 동행내과의원이 주민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임동 중흥S클래스 센텀파크 아파트는 최근 동행내과의원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아파트 입주민 및 가족들은 동행내과의원을 방문 시 의료편의와 함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합건강검진 때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을 비롯해 국가 암 검진 및 일반 검진 시 편의를 제공받는다.

이번 협약에는 기대서 복구의원 의원이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서 복구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지역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상생 모델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 중흥S클래스 이선진 대표는 "기대서 의원의 도움과 동행내과의원의 협력으로 입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

광주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강화 방안 모색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 김대삼)은 최근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돌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단기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의 광역지원기관으로서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사회서비스원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구성된 '긴급돌봄위원회'를 운영한다.

'긴급돌봄위원회'는 대상자 선정 심의, 사업 운영 지원 및 논의, 대상자 사후 관리 등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광주시 긴급돌봄 체계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1분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긴급돌봄 대상자 발굴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긴급돌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는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자치구와 함께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동구, 착한나눔바우처 참여업체 협약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24일 점선실에서 고령 위기가구 사회활동 촉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착한나눔바우처 참여업체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